



# 캘리포니아는 이제 우기,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할까?

캘리포니아가 우기에 접어들었다. 우기에는 비 내리는 날이 많고 구름이 자주 낀다. 천둥과 번개 등 악천후가 동반된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다.

자동차는 이처럼 열악한 주변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그러므로 우기에는 안전운전을 위해 더욱더 자동차 점검에 신경 써야 한다. '소셜포커스'(socialfocus.co.kr)가 우기 자동차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 ■ 에어컨



우기에는 대기 중 높은 습도와 차량 내외부 기온 차이로 인해 김서림이 자주 발생한다. 에어컨은 주로 여름철에 사용하지만 자동차 유리에 낀 김서림을 제거할 때도 작동시킨다. 다만, 에어컨을 가동시켰을 때 쿨리한 공풍이 냄새가 난다면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에어컨 필터는 통상 6개월 또는 6,000마일 정도(약 10,000km) 주행 후 교체하는 것이 좋다. 성능이 떨어진 필터는 공풍이와 세균이 번식하여 악취가 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공기를 효과적으로 걸러지 못해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평소 에어컨 공풍이 방지를 위해 차량 운행을 마치고 전 5분 정도 전부터 에어컨 작동을 멈추고 송풍만 하여 에어컨에 남은 습기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 ■ 시트와 발판

차량 내부의 이물질과 먼지를 제거하여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번식하는 곰팡이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한다. 맑은 날에는 차량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차량 발판을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 ■ 와이퍼

와이퍼는 장마철 점검 1 순위다. 비가 많이 오면 빗



줄기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진다. 오래된 와이퍼는 소음이 발생한다. 와이퍼는 고무가 경화되면 유리가 잘 닦여지지 않고 줄이 생긴다. 와이퍼를 세워 고무가 찢어지거나 휘거나 흠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와이퍼 교체 주기는 사용 횟수와 주행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다.

### ■ 앞 유리

자동차 앞 유리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먼지로 인해 미세하게 기름 성분이 달라붙어 유막이 형성된다. 유막은 비가 내릴 때 와이퍼를 작동하더라도 깨끗하게 닦이지 않아 시야확보가 어렵다. 유막제거제를 사용하여 앞 유리를 잘 닦고 발수 코팅제로 방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빗물이 잘 흘러내려 시야확보에 도움을 준다.

### ■ 라이트



비나 짙은 안개로 인해 앞이나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전조등과 안개등은 쪽우에 차량의 위치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라이트 양쪽 모두 불이 모두 들어오는지 확인하자.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미리 점검하여 빛이 약하거나 안 들어오는 전등이 있으면 미리 교체한다.

### ■ 배터리

기온이 낮은 우기에는 와이퍼 사용이 많고 흐린 날로 인해 미등, 전조등, 안개등 등 전원 사용이 많아 배터리 방전이 발생하기 쉽다. 상태 확인 창이 있는 배터리는 인디케이터 색깔이 녹색이면 정상, 회색이면 보충 필요, 검정에 가까우면 교환해야 한다.

### ■ 타이어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이 발생하여 핸들 조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이어의 마모 정도와 공기압, 갈라짐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 장마철에는 타이어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타이어 트레드 부위 전체가 지면에 고르게 접촉하게 되어 접지력이 높아진다. 적정 공기압은 대부분 자동차 운전석 아래 문틀에 적혀 있다. 타이어는 자동차 부품 중 유일하게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부품으로 자동차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평상시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사진=shutterstock





## 사장님, 칭내세요!

태백나게 도와 드릴게요.

# 태백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